

#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의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홍 유 진

(광주광역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 간의 관계 구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한 다음 총 355부를 최종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매개로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대학교육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실시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세 번째,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해외연수, 인턴제도, 국가간 청년교류 제도를 확대한다.

주요용어 : 다문화수용성,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

본 연구는 홍유진의 2014년도 박사학위논문인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홍유진, 광주광역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21genie@hanmail.net)

■ 투고일: 2014.7.30    ■ 수정일: 2014.9.12    ■ 게재확정일: 2014.9.16

## I. 서론

한국사회는 1990년 이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인은 2002년 629,006명에서 2007년 1,066,273명, 2012년 1,445,103명, 2013년 10월 31일 기준 1,577,300명으로 증가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이는 전체 인구 51,115,702명(안전행정부, 2013) 대비 3.0%를 차지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수식어를 쓸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산업연수제가 실시되면서다. 그 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다수집단인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문화 역량 및 수용성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Berry(2005)는 문화적응이라는 것이 이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에도 포함되는 상호과정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많은 연구들의 관심이 소수집단 사람들의 적응에만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김미진, 2010).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류집단의 수용적 태도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환경이 본격화되는 미래사회를 살아가갈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사회 수용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사회적 적응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사안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국민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인간의 관계구조를 알아보고자 한다. KMCI는 민무숙 등(2010)이 다양성(diversity)과 관계성(relationship)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한국형 다문화수용성척도를 개발한 뒤로 안상수 외(2012)가 보편성 차원을 추가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이란 세 개의 하위차원은 각각 인지, 정서, 행동의 3요소로 나뉜 하위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다양성 차원에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의 3요소와 관계성 차원에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및 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3요소, 그리고 보편성 차원에 이중적 평가와 세계시민 행동

의지의 2요소가 포함되어 총 8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척도를 사용한 탓에 연구결과의 상대 비교나 객관성 도출이 어려웠던 만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척도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KMCI의 요인 중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관계구조를 알아본다. 8개 요인 중 3개 요인만을 추출한 것은 이들과 유사한 개념들이 국내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연구의 대부분이 이들 변수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에 순차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는 다문화수용성 구성요소의 부분적 관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전체 구조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선행 요인과 후행 요인의 관계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요인간의 관계 구조를 밝힘으로써 대학생들은 물론 한국인들의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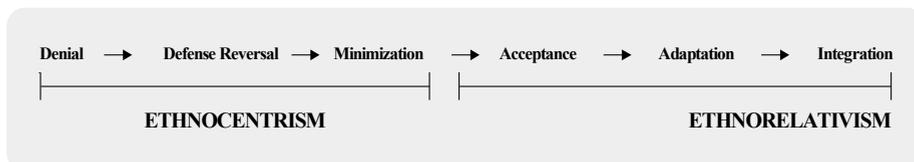
### 1.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

Bennett(2003)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Development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 간에 선행요인과 후행요인이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6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경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즉 둘 이상의 문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태도와 행동경향성들이 진전되고 세련화되는 과정을 가리킨다(조원탁 외, 2012 재인용). 여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정하기(Denial) 단계는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거나 다른 문화 집단을 외국인이나 이민자와 같이 특성이 없는 타자 집단으로 모호하게 인식한다. 나아가 자신

이 주류집단의 성원으로 우월하게 태어났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두 번째, 방어하기(Defense) 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간의 구분이 가능하나 여전히 자기와 다른 문화를 개별적 독특성을 가진 문화로 보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다른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한다. 지배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이민자나 다른 소수자들에게 대한 고정관념을 갖거나 결점을 부각시킨다. 세 번째, 경시하기(Minimization) 단계는 에티켓이나 관습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두 같다는' 가정을 한다. 실제로는 자문화를 존중하고 타문화를 경시하면서 공통문화에 대한 주류집단의 주장은 비주류집단 입장에서 볼 때는 위선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수용하기(Acceptance) 단계는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복합적인 것을 인식하는 수용의 단계이다. 그렇다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 동의나 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치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다. 다섯 번째, 적응하기(Adaptation) 단계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에 적절한 행동과 지각이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인지적 틀을 바꾸어 타문화의 맥락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간문화적 능력을 갖게 된다. 타문화와의 세계관으로부터 적절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타문화에 공감하며 인지, 정서,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여섯 번째, 통합하기(Integration) 단계는 문화적 정체성이 어느 특정 문화에 묶이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문화 주변에서 정의되는, 소위 '건설적인 주변성(constructive marginality)'을 갖게 된다. 즉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 간 어느 쪽에도 중심을 두지 않고 문화적 맥락의 안과 밖을 유연하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상의 여섯 단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모형



자료: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2003). p.424.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을 구성하는 8개 하위 요인들이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을 근거로 요인 간 인과관계 구조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다.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 단계에 다문화수용성의 하위 요인을 대조해 보면 <표 1>와 같다.

표 1. Bennett(1993)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단계와 다문화수용성의 비교표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단계	다문화수용성 하위 요인	
문화적 차이 부정하기	문화개방성	다양성
문화적 차이 방어하기	국민정체성	
문화적 차이 경시하기	고정관념 및 차별 배제	
문화적 차이 수용하기	일방적 동화기대 탈피	관계성
문화적 차이 적응하기	거부회피 정서 탈피	
	상호교류 행동의지	
문화적 차이 통합하기	이중적 평가 탈피	보편성
	세계시민 행동의지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 8개 요인 중에서 3개 요인(상호교류 행동의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을 추출했다. 이 3개 요인이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 단계와 어떻게 상응하는지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Bennett의 1, 2 단계인 부정하기와 방어하기는 문화개방성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부정 단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타문화 집단을 모호하게 인식하는 단계이다. 방어 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구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신의 가치가 공격당하는 것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가진다. 이는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와 이주민을 이웃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인지적 신념을 측정하는 문화개방성과 연결지을 수 있다. 즉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문화가 존재하긴 하지만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며, 다른 문화의 유입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문화개방성 수준이 낮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Bennett의 3단계인 경시하기는 고정관념 및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경시 단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모두 같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는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제도화된 특권을 행사하며 자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이주민들이 따로 모여 모국의 음악,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한다',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은 일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등으로 측정되는 개념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으로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행동경향성을 말한다. 따라서 자문화와 타문화와의 구분은 가능하지만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타문화를 경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Bennett의 5단계인 적응하기는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적응하기는 타문화를 경험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인지적 틀을 바꿔 문화적 맥락에 따른 적절한 지각과 행동이 따르는 상태로 간문화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수용성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기회가 있다면 이주민과 같은 친목 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를 하겠다' 등으로 측정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지적 틀을 바꿔 타문화의 맥락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간문화적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일수록 외국인 및 이주민과 교류하고자 하는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ennett의 문화간 발달이론 6단계와 KMCI의 8요인이 정확하게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Bennett의 이론을 근거로 KMCI의 하위요인들은 이문화와 자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수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통합 단계 혹은 보편성의 단계로 순차적인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 즉, 다양성과 관계성, 보편성 차원 간에 일련의 발달 단계 구조가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 차원의 하위요인인 문화개방성과 고정관념 및 차별, 그리고 관계성 차원의 하위요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 간의 관계도 발달 단계 안에 수렴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선행요인과 후행요인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하겠다.

## 2.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

Ellis(2009)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Rational-Emotional Behavior Therapy: REBT)은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인지적 요인이 정서와 행동적 요인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의 핵심은 인지, 정서, 행동이 인간을 이루는 핵심영역이지만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 결정론적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의 핵심은 ABC 모델이다. A는 당사자에게 의미 있는 활성화된 사건(Activating events)이나 상황, 환경 또는 개인의 태도이며, B는 그 사람의 신념체계(Belief system), C는 선행사건이나 요인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이나 정서적 행동적 결과(Consequences)를 의미한다. 즉,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에서는 A(선행사건)가 C(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A에 대한 믿음, 즉 B가 행동적 결과인 C를 초래한다고 본다(Ellis, 2009).

표 2. ABC 모델과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행동의지 비교표

A(활성화된 사건)	B(개인의 신념 체계)	C(개인의 정서적 행동적 결과)
다문화적 상황사건	문화개방성(인지)	고정관념 및 차별(정서·행동)
다문화적 상황사건	문화개방성(인지)	상호교류 행동의지(행동)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은 다문화수용성도 인지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다문화 상황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그에 반응하는 정서와 행동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는 각 차원 안에 인지, 정서, 행동의 요소가 들어있다. 다문화수용성의 3개 차원, 즉 다양성(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관계성(일방적 동화기대, 거부 및 회피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보편성(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중 인지적 요소는 문화개방성과 일방적 동화기대, 정서적 요소는 국민정체성과 거부 및 회피정서, 이중적 평가 그리고 행동 차원은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 세계시민 행동의지이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측면인 문화개방성은 행동적 측면인 고정관념 및 차별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선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측면인 문화개방성이 향상되면 행동적 측면인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낮아지고, 외국인 및 이주민과 적극적으로 상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행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3.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학년, 전공, 소득 수준/주관적 계층 의식, 부모의 학력 수준, 종교, 학업수준, 자이존중감)과 사회문화적(교육 및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접촉 경험, 미디어 노출 경험, 자원봉사 경험)요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위요인인 문화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월평균 소득, 지역규모, 해외여행 경험, 미디어 접촉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2012). 성별은 인지적 요소가 강한 문화개방성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김동진, 2013; 민무숙 외, 2012; 안상수, 2012; 이지영, 2013). 이는 남성이 외국의 문화, 인종, 종교 등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더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인종이나 이문화 집단에 대해 더 개방적이었다(안상수, 2012).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타인종이나 이문화 집단에 대한 개방성이 낮았으며 중산층의 문화개방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집단에 비해 문화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는 읍, 면 지역의 문화개방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문화개방성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이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체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디어를 통한 접촉 경험은 접촉 경험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문화개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무숙 외, 2012; 안상수, 2012; 이지영, 2013). 단 민무숙 외(2012)의 연구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노출 빈도가 낮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전혀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문화개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념적인 호의가 제한된 정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을 조사한 민무숙 외(2012)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개방성 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일 경우 청소년의 문화개방성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인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개방성 수준도 어머니의 경우와 같았다. 반면 이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문화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무숙 외(201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정관념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월평균소득, 지역규모, 해외여행 경험, 미디어접촉 경험, 부모의 학력이 있다. 안상수 외(2012)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및 차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민무숙 외(2012), 이지영(2013)은 여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아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하나 그 차이가 많지 않았으며(안상수, 2012), 경제적 차이에서는 월소득 규모가 중산층인 집단의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가장 낮았다. 단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산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순으로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민무숙 외(2012)의 연구에서는 중산층, 저소득층, 고소득층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규모 별로는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읍, 면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민무숙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읍,면 지역의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낮아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고정관념 및 차별 수치가 낮았다. 단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행 경험이 아주 없는 경우와 3~5회 이상의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비슷했으며, 오히려 여행경험이 1~2회 일 때 고정관념 및 차별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디어접촉 경험은 접촉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에 비해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였다(민무숙 외, 2012; 안상수 외, 2012; 이지영, 2013). 하지만 민무숙 외(2012)의 연구에서 미디어 노출 빈도가 낮은 경우, 전혀 노출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미디어 접촉은 오히려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 수준에 따른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은 상이한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민무숙 외(2012)는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일 경우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고졸일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개방성 수준도 어머니의 경우와 같았다. 하지만 이지영(2013)은 학력이 높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월평균 소득, 해외여행 경험, 미디어접촉 경험이 있다. 성별에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민무숙 외(2012), 이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상호

교류 행동의지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안상수 외, 2012). 소득에 따른 상호교류 행동의지도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안상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월소득이 중산층 집단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고소득층, 저소득층 순이었다. 반면 민무숙 외(2012)와 이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른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은 안상수 외(2012)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민무숙 외(2012)은 읍, 면 거주 집단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도시, 중소도시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 횟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이 높았으며, 여행 경험이 없거나 6회 이상인 경우 비슷한 수준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보였다. 즉 외국인과의 접촉 횟수에 따라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이 비례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접촉 경험에 따른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수준은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무숙 외, 2012; 안상수 외, 2012; 이지영, 2013).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한 사람은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성향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도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민무숙 외(2012)은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일 경우 가장 높았으며 고졸일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소년의 상호교류 행동의지 수준도 어머니의 경우와 같았다. 하지만 이지영(2013)은 학력이 높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동진(2013)의 연구에서는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학년과 종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 4.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정관념은 대상 집단 구성원이 모두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고정관념이 있으면 편견을 갖게 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확인 편파를 일으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여 잘 기억하게 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지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지각자의 행동도에 맞춰 변화하게 되며 대상에 대한 행동도 이에 상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와 접촉을 회피하게 만든다(김혜숙, 2002).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고정관념과 편견의 결과인 차별적 행동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측정할 수 있다(김경화, 2011; 이상희, 김진숙·한기호, 2012; 황지민, 2012). 사회적 거리감 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넓게는 인지, 감정,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좁게는 행동적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회적 거리감은 ‘수용 가능한 사회적 접촉의 범위(행동의사)’로 측정된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사회적 거리감 척도들은 공통적으로 행위자의 선택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함께 학교에 오고 가는 것, 생일날 그 친구를 초대하는 것, 그 친구와 운동 경기에서 같은 편이 되는 것 등이다(황지민, 2012). 이는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측정하고 있는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설문 문항과 유사하다.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과 편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본 연구에서는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해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지민, 2012). 이는 김경화(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와도 일치한다. 이상희 외(2012)의 연구에서는 백인에 대한 경우,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황인과 흑인에 대한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사회적 거리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종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다문화적 가치지향<sup>1)</sup>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적 가치지향은 다양성의 가치 및 관용, 평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종, 민족,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이나 이주자들이 늘면 우리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등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개방성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과 유사하다. 이상 경험적 연구에서 고정관념과 편견(고정관념 및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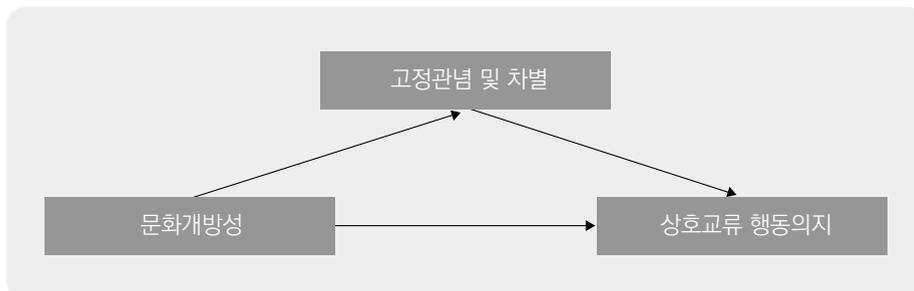
1) 다문화적 가치 지향 설문 문항.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의 인종, 민족,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한 국가가 다른 인종, 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인종,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다문화 가치 지향(문화개방성)과 사회적 거리감(상호교류 행동의지)과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그림 2. 연구모형



통제변수: 성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행사 참여 경험, 미디어접촉 경험, 대화 경험, 해외여행 경험, 자이즌증감, 미디어긍정 경험

#### 2. 연구가설

- 연구가설 1.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대학생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3. 문화개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대학생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4.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C대, D대, G대, J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2013년 6월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고 9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458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355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도구

#### 가. 종속변수: 상호교류 행동의지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KMCI를 사용하였다. 상호교류 행동의지 요소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친목 모임이나 클럽가입, 친구관계 형성, 식사, 데이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향이나 행동의지를 측정한다.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743으로 적정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4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 성향이 높다.

#### 나. 독립변수: 문화개방성

문화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KMCI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나 이웃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과 공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정도 또는 이러한 개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인지적 신념 작용을 중심으로 측정하게 된다. 문화개방성 요소는 이웃이나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의 유입과 정주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말한다.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803으로 좋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4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개방성향이 높다.

#### 다. 매개변수: 고정관념 및 차별

고정관념 및 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KMCI를 사용하였다. 편견 및 고정관념 연구들에서 편견은 정서적 속성을 갖고 있고 고정관념은 인지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다문화수용성의 척도 개발 시 이들 문항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정관념 및 차별 요소는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해 가진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 그리고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을 주로 측정한다. 고정관념 및 차별요소는 인지적 영역에서는 대상 집단에 대한 지식과 대상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다양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관계 의식으로 인하여 다문화수용성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고정관념 및 차별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765로 적정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7개 설문문항에 대해 리커트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약간 그렇지 않다, 4=약간 그렇다, 5=그렇다, 6=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적 성향이 높다.

#### 라. 통제변수

주요 변수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본 자료의 평균차이 검증을 통해 주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성별, 다문화 교육경험, 다문화행사 참여경험, 미디어 접촉경험, 대화경험, 해외여행 경험, 자아존중감, 미디어 긍정경험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행사 참여경험, 외국인과의 대화경험, 해외여행경험은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미디어 접촉 경험은 2회 이하, 3~10회 이하, 11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79)가 개발한 것을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이상균(1999), 오승환(2001) 등 여러 연구자들이 이용한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사용했다. 총 10문항(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

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조성우·노재현, 2009).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852로 좋은 수준이다. 미디어공정 경험은 민무숙 외(2012)가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서 사용했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활동 참여 후의 느낌을 측정하는 척도를 차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나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변화를 알아보는 척도로 차용했다. 설문은 5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경험을 통해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미디어공정 경험 척도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854로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특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55.9%가 여학생으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3.80(표준편차 0.8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활동 경험에 대한 것은 다문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34.6%, 받은 적이 없는 학생은 65.4%이고, 다문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은 20.0%의 학생들이 있었으며 80.0%의 학생들이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응답자들의 해외여행 경험은 42.8%의 학생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대화한 경험은 '대화해 본 적이 없다'가 69%나 되었으며, '대화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31%에 불과해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 경험은 2회 이하가 24.7%, 3회 이상 10회 이하가 47.4%, 11회 이상이 27.8%로 나타나, 직접 접촉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미디어공정 경험의 평균은 4.01(.7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56	44.1
	여	198	55.9
	계	354	100.0
자이존증감	매우 낮음	2	0.6
	낮음	18	5.1
	보통	101	28.8
	높음	156	44.4
	매우 높음	74	21.1
	계	351	100.0
	평균(표준편차)	3.80(.84)	
다문화교육 경험	있다	123	34.6
	없다	232	65.4
	계	355	100.0
다문화행사참여 경험	있다	71	20.0
	없다	284	80.0
	계	355	100.0
해외여행 경험	있다	151	42.8
	없다	202	57.2
	계	353	100.0
대화 경험	있다	110	31.0
	없다	245	69.0
	계	355	100.0
미디어 접촉 경험	2회 이하	87	24.7
	3~10회 이하	167	47.4
	11회 이상	98	27.8
	계	352	100.0
미디어긍정 경험	매우 낮음	1	0.3
	낮음	6	1.8
	보통	76	22.5
	높음	159	47.0
	매우 높음	96	28.4
	계	351	100.0
평균(표준편차)	4.01(.77)		

## 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그리고 관련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문화개방성과 정적 상관관계( $r=.460^{**}$ )에 있는 반면, 고정관념 및 차별은 부적 상관관계( $r=-.358^{**}$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도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정적 상관관계( $r=.184^{**}$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호교류 행동의지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접한 내용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었을 때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정적 상관관계( $r=.423^{**}$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화개방성은 고정관념 및 차별과 부적 상관관계( $r=-.291^{**}$ )를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 $r=.174^{**}$ ), 미디어긍정 경험( $r=.379^{**}$ )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개방성에 미디어긍정 경험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다문화수용성 진작에 미디어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 번째, 고정관념 및 차별은 자아존중감( $r=-.226^{**}$ ),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미디어 접촉경험( $r=-.365^{**}$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미디어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 투입된 요인들은 모두 낮은 단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1				
2	.460**	1			
3	-.358**	-.291**	1		
4	.158**	.051	-.109*	1	
5	.184**	.174**	-.226**	.021	1
6	.423**	.379**	-.365**	.161**	.204**

주: 1. 상호교류 행동의지, 2. 문화개방성, 3. 고정관념 및 차별, 4. 미디어접촉 경험, 5. 자아존중감, 6. 미디어긍정 경험

\* $p<.05$ , \*\* $p<.01$ , \*\*\* $p<.001$

한편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왜도 -.403부터 .726까지, 첨도 -.165부터 1.318사이의 값으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호교류 행동의지	354	1	6	3.70	1.08	-.082	.310
문화개방성	348	1	6	3.87	1.15	-.408	.022
고정관념 및 차별	351	1	6	2.03	.795	.726	1.318
자이존중감	351	1	5	3.80	.847	-.349	-.165
미디어공정 경험	338	1	5	4.01	.779	-.403	-.147

### 3. 가설검증

#### 가. 문화개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모델1은 고정관념 및 차별 변량을 21.0% ( $R^2=.210$ ) 설명하고 있으며, 모집단에 대한 설명력은 18.9%(수정된  $R^2=.189$ )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 $F=10.352, p<.001$ )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델1에서는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참여한 사람의 고정관념 및 차별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6, p<.001$ ). 이는 요인간의 상관관계 계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의미 없는 접촉은 오히려 고정관념 및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접촉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반면 자이존중감이 높을수록( $\beta=-.168, p<.01$ ), 미디어공정 경험이 많을수록( $\beta=-.329, p<.001$ )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영향력을 보면 미디어공정 경험( $\beta=-.329, p<.001$ )이 가장 크며, 다음이 다문화 행사참여 경험( $\beta=.216, p<.001$ ), 자이존중감( $\beta=-.168, p<.01$ ) 순이었다.

모델2는 다문화수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 변량을 22.3%(R2=.223) 설명하고, 모집단에 대한 설명력도 20.1%(수정된 R2=.201)로 향상되었다. 모델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F=9.942, p<.001)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델1보다 모델2가 설명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1에서 모델2로 변화했을 때 설명력이 1.4%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모델2의 요인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다문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의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0$ , p<.001).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beta=-.159$ , p<.01), 미디어긍정 경험이 많을수록( $\beta=-.284$ , p<.001), 문화개방성이 높을수록( $\beta=-.128$ , p<.05)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디어긍정 경험( $\beta=-.284$ , p<.001)이 가장 높고, 다음이 다문화행사 참여 경험( $\beta=.210$ , p<.001), 자아존중감( $\beta=-.159$ , p<.01), 문화개방성( $\beta=-.128$ ,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관념 및 차별은 다문화행사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의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높고,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미디어를 많이 접할수록,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문화개방성이 높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1,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표 6. 문화개방성의 고정관념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분석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	B	SE	$\beta$	t
(상수)	4.092	.259		15.793***	4.207	.262		16.062***
성별 <sup>1)</sup>	.070	.068	.052	1.025	.084	.068	.062	1.237
다문화교육 <sup>2)</sup>	-.014	.074	-.010	-.192	.003	.074	.002	.042
다문화행사 <sup>3)</sup>	.361	.087	.216	4.129***	.351	.087	.210	4.040***
대화 경험 <sup>4)</sup>	-.047	.075	-.033	-.626	-.048	.075	-.033	-.639
미디어접촉 <sup>5)</sup>	-.097	.086	-.060	-1.134	-.097	.085	-.060	-1.139
해외여행 <sup>6)</sup>	.049	.070	.036	.703	.065	.070	.048	.926
자아존중감	-.175	.054	-.168	-3.227**	-.166	.054	-.159	-3.073**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B	SE	$\beta$	t	B	SE	$\beta$	t
미디어긍정	-.339	.054	-.329	-6.257***	-.293	.057	-.284	-5.108***
문화개방성					-.090	.039	-.128	-2.340*
통계량	R <sup>2</sup>	.210			.223			
	수정된 R <sup>2</sup>	.189			.201			
	F(p)	F=10.352***(p=.000)			F=9.942***(p=.000)			
	R <sup>2</sup> 변화량				.014((F=5.474*/p=.020)			

주: 1) '여학생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 2) 다문화 교육 참가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3) 다문화행사참가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4) 대화 경험 '거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5) 미디어접촉 경험 '2회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6) 해외여행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p<.05, \*\*p<.01, \*\*\*p<.001

## 나. 문화개방성과 고정관념 및 차별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대한 영향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모델 1은 상호교류 행동의지 변량을 20.5%(R<sup>2</sup>=.205) 설명하고 있으며, 모집단에 대한 설명력은 18.4%(수정된 R<sup>2</sup>=.184)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F=10.015, p<.001)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델1에서는 대화 경험과 미디어긍정 경험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경험은 대화를 한 경험이 거의 없는 집단보다 있는 집단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beta$ =.126, p<.05) 미디어긍정 경험, 즉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간접 경험을 많이 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beta$ =.364, p<.001). 모델 2는 상호교류 행동의지 변량을 29.7%(R<sup>2</sup>=.297) 설명하고, 모집단에 대한 설명력도 27.6%(수정된 R<sup>2</sup>=.276)로 나타났다. 모델 2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F=14.526, p<.001) 모형으로 확인됐으며, 모델1보다 모델2가 설명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1에서 모델2로 변화했을 때 설명력이 9.2%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모델2의 요인 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beta=.332, p<.001$ )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미디어긍정 경험( $\beta=.247, p<.001$ )과 대화 경험( $\beta=.127, p<.05$ )이 뒤를 잇고 있다. 즉, 문화개방성이 낮은 학생보다 높은 학생이, 미디어긍정 경험이 적은 학생보다 많은 학생이,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대화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가설 2,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이 대학생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모델 3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을 통제한 결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관한 설명력은 32.1%( $R^2=.321$ )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2와 비교해 설명력이 2.4% 향상된 것이며, 모집단에 대한 설명력도 29.9%(수정된  $R^2=.299$ )로 향상되었다. 모델 3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F=14.613, p<.001$ ). 모델 3의 요인 별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개방성( $\beta=.309, p<.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이 미디어긍정 경험( $\beta=.197, p<.001$ ), 고정관념 및 차별( $\beta=-.177, p<.01$ ), 대화 경험( $\beta=.121, p<.05$ ) 순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개방성이 높을수록, 미디어긍정 경험이 많을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이 낮을수록, 대화 경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상호교류 행동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델 3이 가장 설명력이 좋은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모델3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32.1%만큼 설명하였으며,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화개방성, 미디어긍정 경험, 고정관념 및 차별, 대화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3, 문화개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대학생들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대학생의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었다.

표 7.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SE)	$\beta$	t	B(SE)	$\beta$	t	B(SE)	$\beta$	t
(상수)	1.111 (.354)		3.142**	.707 (.339)		2.085*	1.723 (.452)		3.814***
성별 <sup>1)</sup>	.101 (.094)	.055	1.078	.050 (.088)	.027	.567	.070 (.087)	.038	.801

독립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SE)	$\beta$	t	B(SE)	$\beta$	t	B(SE)	$\beta$	t	
다문화교육 <sup>2)</sup>	-.002 (.101)	-.001	-.024	-.062 (.096)	-.032	-.649	-.060 (.094)	-.032	-.641	
다문화행사 <sup>3)</sup>	.041 (.119)	.018	.339	.075 (.113)	.033	.664	.159 (.114)	.070	1.398	
대화 경험 <sup>4)</sup>	.247 (.102)	.126	2.407*	.249 (.097)	.127	2.574*	.237 (.095)	.121	2.488*	
미디어접촉 <sup>5)</sup>	.174 (.117)	.079	1.487	.173 (.110)	.079	1.576	.151 (.108)	.068	1.389	
해외여행 <sup>6)</sup>	.091 (.096)	.050	.955	.037 (.091)	.020	.404	.052 (.089)	.028	.577	
자아존중감	.081 (.074)	.057	1.091	.049 (.070)	.034	.699	.009 (.070)	.006	.129	
미디어긍정	.510 (.074)	.364	6.889***	.347 (.074)	.247	4.666***	.276 (.076)	.197	3.618***	
문화개방성				.318 (.050)	.332	6.360***	.296 (.050)	.309	5.971***	
고정관념 및 차별							-.241 (.072)	-.177	-3.335**	
통계량	R <sup>2</sup>	.205			.297			.321		
	수정된 R <sup>2</sup>	.184			.276			.299		
	F(p)	10.015***(.000)			14.526***(.000)			14.613***(.000)		
	R <sup>2</sup> 변화량				.092(F=40.452***/p=.000)			.024(F=11.121**/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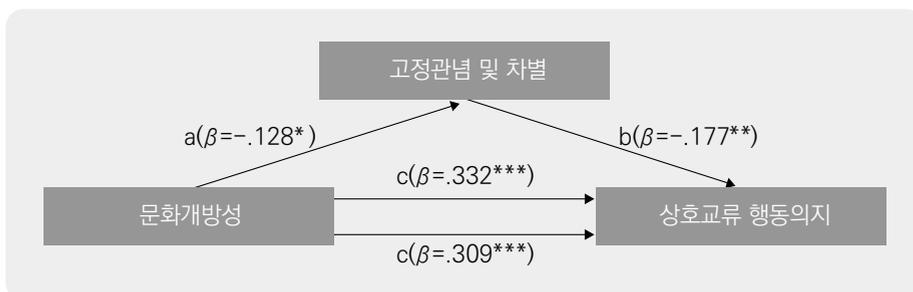
주: 1) '여학생'을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 2) 다문화 교육 참가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3) 다문화행사참가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4) 대화 경험 '거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 처리 5) 미디어접촉 경험 '2회 이하'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6) 해외여행 경험 '없다'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

\*p<.05, \*\*p<.01, \*\*\*p<.001,

## 다. 매개효과 검증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인 문화개방성이 종속변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332, p<.001$ ).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문화개방성이 매개변인으로 추정되는 고정관념 및 차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28, p<.05$ ). 그리고 고정관념 및 차별이 종속변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177, p<.01$ ). 마지막으로 고정관념 및 차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문화개방성이 종속변인인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beta=.309, p<.001$ ). 고정관념 및 차별을 통제했을 때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beta=.332$ 에서  $\beta=.309$ 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t=5.971, p<.001$ ) 고정관념 및 차별의 매개 효과는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 매개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 가설 4가 성립되었다. 이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고정관념 및 차별의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 매개



통제변수: 성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행사참여 경험, 미디어접촉 경험, 대화 경험, 해외여행 경험, 자아존중감, 미디어긍정 경험

가설 4, 즉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그림 3]과 같이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한 결과 표 11과 같이 Z값이 90% 사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1.899, p=.057$ ). 이로써 가설 4,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8.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의 매개검증

구분	a	b	sa	sb	Z	S.E	p
통계량	.090	-.241	.039	.072	1.899	.011	.057

주: +  $p<.1$ , \*  $p<.05$ , \*\*  $p<.01$ , \*\*\*  $p<.001$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과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관련요인으로 조사된 응답자의 성별, 다문화교육 경험, 다문화행사참여 경험, 미디어접촉 경험, 대화경험, 해외여행 경험, 자아존중감, 미디어공정 경험을 통제변수로 하고 이들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이 부실한 103부를 제외하고 35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개방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고정관념 및 차별 성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Ellis의 이론에 따라 인지적 측면인 문화개방성이 정서와 행동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고정관념 및 차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의 인지적 측면이 다문화수용성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가설1,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문화개방성이 고정관념 및 차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을 연구했던 변선영(2008)의 질적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변선영(2008)은 중학생들이 학교나 교회,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코시안과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경우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방성은 코시안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즉,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구성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코시안을 직접 경험한 학생집단이 간접 경험한 학생집단보다 긍정적인 인식(개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개방성)은 코시안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를 줄여주고 고정관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llis의 이론에 따라 인지적 측면인 문화개방성이 행동적 측면인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의 인지적 측면이 다문화수용성의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가설2, 대학생의 문화개방성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한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변화를 연구했던 변정현(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변정현(2011)<sup>2)</sup>은 체험적 교류 활동의 사전사후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직접적인 접촉 증가가 인식의 전환(개방성)을 가져오고 상호교류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개방성을 통제하고 고정관념 및 차별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고정관념 및 차별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Bennett의 문화간 민감성 발달이론에 근거해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설 3인 대학생의

2) 변정현(2011). 「체험적 교류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연구」 연구에서 체험교류를 한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설문항목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 '다른 나라 친구와 사귀어 보고 싶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전통문화가 있다'였고 이는 정적 영향을 보였다. 반면 '손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이상하다'는 설문문항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험 교류라는 직접 접촉을 통해 인식(문화개방성)이 바뀌고, 행동(상호교류 행동의지)이 증가했으나, 고정관념 및 차별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개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은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도 채택되었다. 이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멀다는 선행연구 결과(김경화, 2011; 이상희 등, 2012; 우재영, 2012; 윤인성, 2011; 황지민, 2012)와 유사하다. 이상희 외(2012)는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황인이나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적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문화적 선진국 국민에게는 긍정적이고 동남아시아나 유색인종에게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이중적 평가 성향(윤인진 외, 2009; 황정미 외, 2007)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접촉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본 연구에서 대화 경험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문화개방성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문화개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성향이 상호교류 행동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정관념 및 차별성향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문화개방성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라도 여전히 통계적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고정관념 및 차별은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부분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가설 4, 대학생의 고정관념 및 차별은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관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매개임이 밝혀져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호교류 행동의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개방성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들은 고정관념 및 차별수준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미디어의 효과성을 연구한 정연구 외(2011)와 이현정 외(2013)의 연구결과에서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정연구 외(2011)는 시청자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에 노출될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감소했고, 부정적인 뉴스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현정 외(2013)도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서 오락적 장치를 가미한 긍정적인 내용(예시: KBS2의 '미녀들의 수다')에 시청자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다문화수용성과도 가장 관련이 높았다고 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인 다문화개방성에도 다문화콘

텐츠 시청량과 뉴스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시청량이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연구 외(2011)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집단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내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접촉만 있는 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미디어공정 경험이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정관념 및 차별이 문화개방성과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은 문화개방성(인식개선)을 증가시키면 고정관념이 작동하더라도 이문화 집단과 상호교류 하려는 행동의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화개방성 수준을 올리고 고정관념 및 차별 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편견 교육이나 타인종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인식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대학의 교과목을 선정할 때 다문화이해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나 전공필수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휴먼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 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를 했던 박소정(2013)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의 12개 4년제 대학 중 다문화 교과목이 개설돼 있는 학교는 총 8개 대학이었고 전공별로는 사회복지학 4개 대학, 교육학이 6개 대학, 간호학이 3개 대학이었다. 휴먼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교육현장에서조차 다문화 관련 과목은 제한적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과목들은 대부분 전공선택이나 교양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수강 여부가 결정되었다. 다문화 이해 관련 과목을 교양 필수나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면 도래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장치가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대학의 교과 과정을 구성할 때 다문화수용성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과 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문화수용성은 일련의 발달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학년마다 특화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실시된다면 다문화수용성 증진에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문화개방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역사적정치적 배경과 세계화의 영향을 지식 차원에서 학습하게 한다. 2학년 때에는 각국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과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하는 반편견 교육을 실시한다. 3, 4학년 때에는 현장에서 타인종 이문화 집단을 접하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한다면 다문화 이해교육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대학생의 문화개방성 증진을 위한 타인종 이문화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타인종 이문화 집단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해외 인턴십과 자원봉사는 대학생들이 문화개방성을 향상시키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무료 해외봉사의 경우 경쟁률이 높고 외국어 실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된다(박소정, 2013). 하지만 국가 차원의 빈곤문제 해결이 가난의 대물림을 끝내는 거라면 다문화 시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해외연수나 인턴십,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두 마리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각 기업의 인턴십이나 자원봉사 모집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부분을 지금보다 더 늘리도록 하고 그런 기업에는 사회공헌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Working Holiday<sup>3)</sup>나 국가 간 청년 교류도 지금보다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대학생들에게 이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홍유진은 호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광주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이며, 현재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가족의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21genie@hanmail.net)

<sup>3)</sup> 워킹홀리데이는 체결국(지역) 청년(만 18~30세)들에게 해당국가(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허가하는 비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6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 (YMS)를 체결하고 있다(<http://www.whic.kr/workingholiday/intro/>).

## 참고문헌

- 김경화(201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호감도 및 사회적 거리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pp.83-97.
- 김동진(2013).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청주대학교, 청주.
- 김미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정학과, 고려대학교, 서울.
- 김혜숙(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관계.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논총*, 9, pp.83-101.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소정(2013). 휴먼서비스분야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교육 실태와 다문화 역량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자치복지행정학, 목포대학교, 목포.
- 변선영(2008). 코시안에 대한 개방성과 고정관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일반사회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변정현(2011). 체험적 교류 활동을 통한 다문화 인식 변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일반사회교육, 부산대학, 부산.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2013).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월간현황 10월.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이상희, 김진숙, 한기호(2010). 초등학교생들의 인종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8(1), pp.133-166.
-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윤리교육과, 서울대학교, 서울.
- 이현정, 안재용, 이상우(2013). 다문화콘텐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언론학회*, 57(3), pp.34-57.

- 오승환(2001). 저소득 결혼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우재영(2012).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초등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 사회 심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초등교육학과, 서울교육대학교, 서울.
- 윤인성(2011). 일반아동의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계명대학교, 대구.
- 윤인진,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 사회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pp.579-591.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http://www.whic.kr/workingholiday/intro/>.
- 전병제(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대한 연구. 연세논총, 11, pp.109-129.
- 정연구, 송현주, 윤태일, 심훈(2011). 뉴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2), pp.406-444.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년 10월호, p.23.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지민(2012).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pp.174-21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ennett, M. J. (1993). Toward ethno 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2nd*, pp.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Ellis, A. (2009). *Personality theories: Critical Perspectives*. Thousand Oaks, CA; Sage.
- Hammer, M. R., Bennett, M. J., & Wiseman, R. (2003). Measu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The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4), pp.421-443.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and Reciprocity Willingness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in the Gwangju and Jeonnam

**Hong, Yoo Jin**

(Gwangju Nam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and verify causal effect structure among reciprocity willingness,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Bennett's inter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theory and Ellis' rational emotional behavioral treatment. Through this, it was tried to propose direction of policy development to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all Koreans as well as university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rvey was performed on freshmen of 4 universities in Gwangju and Jeonnam using KMIC (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58 copies were collected. Out of them, 355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at the analysis. First, cultural openness made negative influence on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Second, cultural openness made posi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Third,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ade negative influence on reciprocity willingness. Fourth, preoccupation and discrimination mediated cultural openness and reciprocity willingnes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ree tasks were proposed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First, we need a policy to make multi culture related program production mandatory. Second, subject courses reflecting multi-culture acceptability development stages should be developed. Third, to increase cultural openness of university students, current overseas study, intern system, and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system should be expanded.

---

**Key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Culture Openness, Preoccupation,  
Discrimination, Reciprocity Willingness**